

# 2013 연세대학교 인문 아름다움 모범답안

작성자 : 정도환 (Hwanism)

작성일 : 2014-06-24(최종)

1. 세 제시문은 공통적으로 진정한 아름다움에 관해 논하고 있다. 이 때, 아름다움이 생길 때, 자연스러움과 인위성이라는 두 기준에 의해 서로 다른 논지들을 취하고 있다. 이 관점에 따라 제시문 (가)와 (나), (다)는 구분 될 수 있다. 제시문 (가)는 인간의 조작으로 인한 아름다움의 폐해를 논하며,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자연의 순리에 의해 생긴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는 매화라는 소재를 통해 아름다움을 논하고 있는데, 문인화가들이 매화의 아름다움을 인위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통용 시킴으로써 매화들이 모두 병들어 죽었다고 비판한다. 이에 반하며 순리에 따라 매화를 재배함을 주장하며, 순리에 의한 아름다움을 강조한다. 물론 순리에 따르는 것이 순리를 통해 아름다움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과는 동일한 의미는 아닐 수 있다. 순리에 따라 재배한 매화가 인위적으로 재배된 매화보다 표면적으로 덜 아름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위적 재배에 대한 병폐를 논하며, 순리로의 회귀를 주장함은 표면적으로 아름다울 수 있지만 이것을 진정한 아름다움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한 관점이 단순히 표면적 아름다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제시문 (나) 와 (다)는 (가)와 반대로 인위적인 개입을 아름다움의 구성 요소로 보고 있다. 그러나, 두 제시문이 인위성을 아름다움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는지는 서로 다른 논지를 취하고 있다. 제시문 (나)에서는 부석사 무량수전에 관해 찬양하고 있다. 인간의 개입으로 인해 창건된 무량수전이 자연과 조화하면서 아름다움을 구성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제시문 (나)는 아름다움에 대한 자연과 인간의 인위적 조작이 조화로서 이루어 진다고 보고 있다. 특히, 석축을 쌓아 올리는 것은 잔재주에 기울기 마련일 수 있지만, 부석사 석축들이 자연과 조화되는 모습은 그렇지 않다라는 점에서 자연과 인위성의 조화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반면 제시문 (다)에서는 아름다움의 기준인 우아함은 '꾸민 듯함'과 '아무런 티도 안냄'의 두 조건이 동시에 작용할 때, 이루어 진다고 주장한다. 즉, 꾸민 듯함으로 표현되는 인위성과 티도 안냄으로 표현되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동시에 작용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스러움은 인위적인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아름다움을 위해선 자연과 인위성이 동일하게 작용하는 역설적인 합일의 관계를 주장한다.

정리하면, 제시문 (가)는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연에 따름으로서만, 제시문 (나), (다)는 각각 자연과 인위의 조화, 자연과 인위의 역설적 합일에 의해 생긴다고 주장한다. 또한, 제시문 (가)에서 말하는 아름다움은 단순한 표면적 아름다움을 넘어선 본질적인 아름다움으로 추측된다, 반면 제시문 (나), (다)는 단순한 표면적 아름다움을 논하고 있다. 동일한 아름다움이란 단어를 어떤 개념으로 접근하는지도 서로 다른 관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2. 제시문 (라)는 다이아몬드 원석과, 원석을 가공해 만든 물방울 다이아몬드의 모습을 보여 준다. 이는 제시문 (가)의 문인화가, 제시문 (나), 제시문(다)의 주장에 의해 3가지 관점을 통해 해석될 수 있다. 이 제시문들은 모두 아름다움과, 자연과 인위성이라는 관점으로 이해 될 수 있다.

제시문 (가)의 문인화가는 매화의 아름다움의 기준을 정하고, 이를 매화 파는 사람들에게 인지시킴으로써, 문인화가의 기준에 따르는 매화들은 아름다움의 기준이 되었다. 이를 통해, 인위적으로 재배된 매화들은 높은 경제적 가치를 띄게 되어, 사람들이 뺨뺨한 것을 쳐내는 등 유행하기도 하였다. 이런 관점에 따라 제시문 (라)를 보면 원석에서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되도록 인위적으로 가공함은 더 높은 경제적 가치를 만드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인위적으로 재배된 매화가 높은 경제적 가치를 띤 것 같이, 가공된 물방울이 원석보다 경제적 가치를 띄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제시문 (가)의 전체적인 주장인 자연에 따라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는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비경제적인 주장으로 볼 수 있다. 더 큰 경제적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데 이를 포기함은 현실적으로 비효율적인 행동이다.

제시문 (나)에 따르면 자연과 인위성의 조화를 통해 아름다움은 극치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제시문 (라)의 물방울 다이아몬드는 자연의 원석에 인위적인 가공이 조화되어 아름다움의 극치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해석에 따르면, 제시문 (가)의 논지는 비판 받는다. 제시문 (가)에서는 인위성의 개입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이다. (나)의 관점으로 바라본 (라)의 해석에 의하면 제시문 (가)에서 인위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 보다는 적당한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제시문 (다)에 따르면 자연스러움과 인위는 서로 구분 지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는 걸모습은 사실 철저한 인위적 행동이 개입된 것으로, 이 둘이 동시에 존재해야 아름다움이 성립된다. 이에 따르면 (라)의 물방울 다이아몬드 또한 완전히 자연스러운 모습을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다이아몬드라고 하면 제시문 (라)에서 제시된 원석보다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물방울 다이아몬드는 이미 앞에서 설명했듯이 인위성이 개입된 모습이다. 제시문 (다)의 주장처럼 물방울 다이아몬드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지니지만, 인위성이 개입된 아름다움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제시문 (가)에서 인위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오류이다. (가)에서 추구하는 인위성이 배제된 진정한 아름다움 조차도, 결국에는 인간의 개입이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매화를 휘지 않게 하고, 틀어지지 않게 하면서 최대한 자연의 모습자체를 추구하려고 하더라도 결국 인간이 매화를 재배하는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개입이 배제될 수 없기 때문에, 제시문 (가)에서 말하는 인위성의 완전한 배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